

영국, 삶의 질 높이는 건축환경 제안 위해 ‘Living with Beauty’ 발간

<https://www.gov.uk/government/news/housing-secretary-beautiful-homes-should-become-norm>

<https://www.dezeen.com/2020/01/30/living-with-beauty-building-better-building-beautiful-housing-commission-final-report/>

영국 Building Better, Building Beautiful Commission(BBBBC)은 지난 1월 30일, 정책 보고서 ‘Living with Beauty’를 발간하였다. 2018년 11월 설립된 BBBBC는 부실한 주택 설계 및 건설을 방지하고, 고품질 주택 개발 및 디자인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정책 보고서는 건축환경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삶의 형태와 가치를 대변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주택 유형을 구분하거나 디자인 가이드를 제시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도로 설계와 보행자 안전, 자연환경과 기후변화 등에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주택 설계 및 건설 계획에서 시각적 측면을 보다 강화해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공간을 제안하는 ‘Ask for Beauty’, 버려진 장소 등을 재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Refuse Ugliness’,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한 ‘Promote Stewardship’이라는 3가지 목표 아래 8개 분야에 걸쳐 130가지에 달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정책 제안을 통해 과거 개발과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고자 한다. 한편, 영국 정부는 2019년 10월 ‘The National Design Guide’를 발표하며, 이번 정책 보고서의 첫 번째 제안을 부분적으로 이행하기도 하였다.

Planning 주택의 설계 및 건설 등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 The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NPPF)에 포함되며, ‘아름다움’을 보장하도록 명확하고 단순한 지침을 마련	Communities 건물에 부여되는 디지털여권 등 지역 계획 단계에서 디지털 기술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민주적 참여를 지원
Stewardship 섬부른 개발을 지양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역사, 문화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연맹을 형성	Regeneration 부가가치세 폐지 혹은 최소 5% 부과, 최고 장소 책임자 임명 등 버려진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Neighbourhoods 도시를 구성하는 건물의 적절한 밀도를 제안하고, 보행자를 위한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정책 마련	Nature 향후 5년간 2백만 그루의 나무를 새로 심고, 운하와 수로를 개방하는 등 도시 녹색화에 기여
Education 건축과 디자인의 역사, 웰빙, 건강 등을 포함하는 ‘장소만들기(Placemaking)’에 대한 이해 증진	Management 조달에 관하여 중앙 정부 및 협의회 등에서 대중 선호도를 고려한 객관적인 조치계획 마련

분야별 주요 실행 방안

출처: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861832/Living_with_beauty_BBBBC_report.pdf(검색일: 2020.2.27.)